

- 04 KT인사이드
- 인터뷰 / 제15대 위원장 김인관
- 08 현장 속으로
- 노동조합 창립 42주년 기념 및 위원장 이·취임식
- Special Theme
제15대 집행부 출범
- 12 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
- 16 ICT리포트
- 2024 ICT 10대 이슈
- 20 KTTU 생활백서
- 지구가 '끓는' 시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법
- 22 KTTU 건강백서
- 하루 10분 명상이 만드는 변화
- 24 여행여지도
- 전북
- 28 문화살롱
-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 <미안해요, 리키>
- 30 KTTU News
- 34 카툰
- 2023 4분기 중앙노사협의 결과
- 36 현장의 목소리 & 퀴즈

수고했어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니야라는 말 한 마디에
집안 가득 온기가 채워집니다.
아늑한 조명 위로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지니는 소소한 말동무를 자처합니다.
지니의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라는 다독임은
하루의 피로를 잠시나마 씻겨줍니다.

2017년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일상 깊숙이 스며든 지니,

예나 지금이나 KT의 기술은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2024년 오늘 KT가 만들어갈
세상이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발행인 KT노동조합 위원장 김인관
편집인 KT노동조합 조직처장 황윤구
발행일 2024년 2월 14일(격월간)

발행처 KT노동조합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T 031-727-2840 F 031-727-2815

기획·제작 (주)윙크디자인 T 02-332-7961~2

KT노동조합 제15대 위원장 김인관

‘KT를 다시 위대하게’ ‘조합원을 행복하게’ 정책과 제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KT노동조합 제15대 김인관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가 이룬 업적과 토대 위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는 다짐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은 제15대 집행부가 견지할 자세로 창조적 의견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투명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조합원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 선거에서 노동조합 사상 최초 ‘득표율 90.37%’를 기록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위원장 이전에 인간 김인관으로서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고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하게 다가간 것이 높은 득표율의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세를 다니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평소 신념 및 가치관을 허심탄회하게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 이력까지도 꺼내어 조합원들과 깊이 소통하려 했는데요. 그 부분에 많은 조합원이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노동조합이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고 책임지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95년 정보통신운용국 지부장을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간 - 중간에 현업으로 복귀하셨던 기간도 있었지만 -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오랜 세월 한 길을 걷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처음 노동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 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조합원들에게 자행되는 한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서, 무작정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 때만 해도 조직 문화는 상당히 관료적, 권위적이었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쇠신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 노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까요. 다행히 같이 일해보자는 선배의 부름을 받고 노동조합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멋모르고 열심히 신념대로 일했죠. 일종의 비주류였던 셈인데 회사 눈치 안 보고 우직하게 활동하니 조직 내에서도 점점 더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 소신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현업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제 역할을 끝까지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조합원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시 노동조합에 복귀했을 땐 오히려 조합원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죠. 그러한 든든함을 백그라운드 삼아 이제 제15대 위원장으로 조합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집행부가 이뤄낸 견고한 업적과 토대 위에서 KT 희망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겠습니다.

15대 집행부 슬로건 ‘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에 담긴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활동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확신 없이는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죠. 조합원과 회사가 땀 흘린 만큼 성장하는 결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모두의 바람을 현실화 시키려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선 조합간부가 현장을 모르거나 회사 경영환경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면 주춤하게 되니까요. 슬로건에 이 확고한 원칙을 담고자 했습니다. 조합원의 질문에 언제나 답할 수 있는 노동조합, 현장의 애로사항에 해답을 제시할 줄 아는 노동조합이 주저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대 집행부의 방향은 먼저 전면적인 쇄신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합간부들에게 조합원에 복무하는 노동조합의 기본 자세를 확립시키되 논리와 전문성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들어온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노조간부가 완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모제를 통해 조합간부를 선임한 것은 그 일환입니다. 기득권 세대와 선을 긋고,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합원 출신의 젊은 간부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회사의 이론에 대응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든 겁니다. 향후 저와 제 세대보다 더 나은 역량 있는 간부들을 양성해서, ‘쪽수’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노조에 대한 회사의 인식과 태도도 바꿔보고 싶고요.

노사 파트너십을 위해 회사가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노동조합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을 텐데, 노사 상생을 위해 상호 기울여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회사의 정책이나 개편 등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들도 물론 있을 텐데요. 사측과의 갈등은 어떠한

전략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인지, 조합원 사이 여러 가지 갈등(세대·젠더·직군)도 노동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일 텐데요.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노사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들을 얘기는 듣고 할 얘기는 해야겠죠. 대립 관계가 이어질 때도 있겠지만 KT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노사문화로 안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 주도의 관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모적인 대립 관계에 머문다면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 내부 역량 제고는 요원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대등한 소통을 이어간다면 노사 상생을 못할 이유가 없지요.

조합원 처우에 관해서는 최대한 양보하지 않겠지만, 매사 승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조합원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집행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는 자세로 복무할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면 솔직하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사과할 것은 해야죠. 다양성이 부정되고 내부 소통이 막힌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15대 집행부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 가치관이 조합원께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는 격려대로, 질책은 질책대로 겸허하게 수용하여 더 나은 노동조합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15대 집행부에 거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면을 빌려 앞으로 3년의 포부와 다짐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권력욕이나功名심 같은 것은 없었으니 지금도 위원장이라기보다 그냥 자리를 옆에서 옆으로 옮긴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즉, 조직처장일 때나 위원장이 됐을 때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햇살이 내리쬐는 날도, 비가 내리는 날도 있겠지만 제게 지워진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 정말 후회 없이 잘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선거 때 약속드린 공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른 전략과 역량을 수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이겠지만 조합원을 믿고 당당히,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kt노동조합 창립 42주년 기념식 및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KT노동조합의 지난 40년은 반복되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역사다.
KT노동조합은 격동의 시기 노동자의 권리를 개척하며,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왔다.

제15대 집행부는 KT노동조합 40년 역사를 자양분 삼아,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KT노동조합을 향한 열띤 응원

KT노동조합 42주년 기념식 및 위원장 이·취임식이 1월 4일 분당 사옥 대강당에서 열렸다. 7개 지방본부 위원장 및 전국 조합간부는 이날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분당 사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행사에 앞서 타악 그룹 '울'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울이 웅장한 북과 흥겨운 리듬으로 흥을 돋우는 동안 대강당의 열기도 달아올랐다. 이어 '한통노조가'가 울려 퍼졌고, 전국 조합간부는 한통노조가를 합창하며 40년 노동조합의 역사를 기렸다.

뒤이어 조합원들은 노동의례를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노동권 개척을 위해 스러져갔던 선배 열사들을 애도했다.

내외빈 소개와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및 이용남 전략지도본부장, KT노동조합 6대 김호선, 7대 이동걸, 10대 김구현, 11대 정윤모, 13대 김해관 위원장이 참석해 KT노동조합 42주년 기념식 및 위원장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국회의원으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주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자리를 빛냈다. 그 밖에 사회 각계각층 내외빈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KT노동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철장으로

좋은 선례는 유지, 결의 내용은 관철!

제14대 집행부 3년의 활동이 담긴 영상과 제15대 집행부를 향한 조합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 상영 후 모범조합원 표창이 진행됐다.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2명, 전국 IT 사무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표창 2명, 우수지부 3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자주적, 민주적 활동을 통한 조합원들의 권익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제14대 최장복 위원장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다. 한국운수물류 노동조합은 운수물류 노동조합 단결과 연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KT노동조합 동우회는 동우회 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KT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노동 존중 세상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밝혔다.

조합기 깃발 이양식과 함께 본격적인 위원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최장복 위원장은 이임식 인사를 통해 “KT노동조합 40년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이 고비마다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그 때마다 노동조합은 강철 같은 단결과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곧 출범할 15대 집행부가 14대의 장점은 계승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완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인관 위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립하고, 역대 최고의 임금 인상과 보상체계를 만들어낸 14대 집행부의 성과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 오랜 협상 끝에 나온 산물”이라고 설명한 뒤 “좋은 선례는 유지, 발전시키고 혁신을 통해 결의한 내용은 책임지고 관철시켜, 지난 선거에서 조합원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시대, 노동조합의 걸맞은 역할

이·취임식 후 참가자들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김인관 위원장이 개척해 갈 새로운 KT 미래를 위해 한국노총의 모든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철 같은 연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노사 협력과 상생으로 KT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김인관 위원장의 결의에서 KT의 성장을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최장복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며 “김인관 위원장 또한 KT노동조합의 새로운 혁신을 이룰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KT는 훌륭한 노사관계를 정립했다”며 “앞으로도 모범적 노조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영섭 대표이사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다면 더 높이 날아오르는 KT가 될 것”이라며 “발전적 노사관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T노동조합 창립 42주년 기념식 및 위원장 이·취임식에서 노사는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다. 제15대 집행부는 KT노동조합 40년 역사를 자양분 삼아 새롭게 도약할 것을 밝혔다. 그 희망의 메시지에 전국 조합간부는 열화 같은 박수로 화답했으며 기념행사는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기권없는 실천!
공안없는 진진!

제15대 집행부 공약

제15대 집행부는 출근하는 발걸음에
'내 일'과 '내일'에 대한 기대를 실을 수 있는 일터,
조합원과 함께 발전하는 KT를 만들어간다는 다짐입니다.



맘의 가치를 더 크게 돌려주는 공정한 보상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직원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직원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함께 키운 나무의 열매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직원을 최고로 대우하고 노동의 가치에
최고로 보상하는 일터
KT가 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입니다.
매일 매일 노동의 가치가 더 빛나도록!
15대 노동조합이 공정보상의 길을 열 것입니다.

누구도 고용불안에 떨지 않는 든든한 내일

새로운 CEO 취임,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고용안정입니다.
내일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 일'과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조합원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인력 부족을 해소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일터에 바친 젊은 날의
노력과 맘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있어 안심되는 내일을 열겠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실패해도 다시 꿈꾸는 균등한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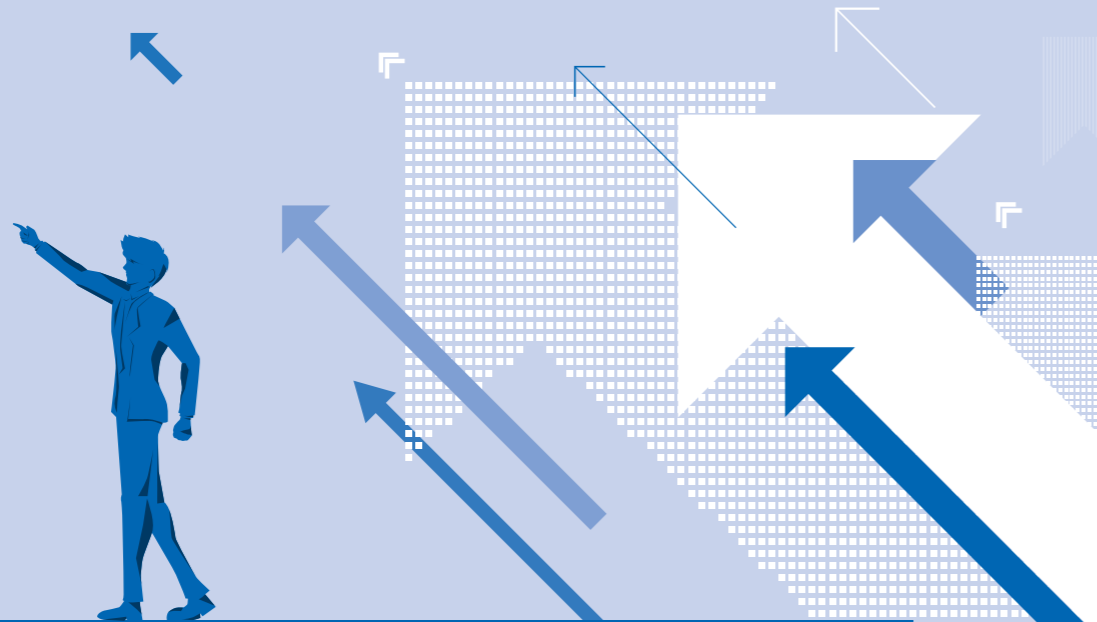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확신 없이는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실패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안정감 없이는 소신 있게 도전하며,
업무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치우침 없이 기회를 보장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내 일'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15대 노동조합이 균등 기회 보장의 길을
열 것입니다.

구석구석 세심하게 매일 더 좋아지는 풍성한 내일

여성과 남성, 기혼과 미혼,
유자녀 가족과 무자녀 가족,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허점 속에서 소외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구석구석 살피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더 좋게 정비하고 허점은
보완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더 좋아지는 풍성한 내일을 기대하도록!
15대 노동조합이 Union Care의 길을 열겠습니다.

새 길을 개척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기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최고의 보상, 균등한 기회, 풍성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조부터 제대로 혁신하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KT노동조합 40주년의 새 비전! 새로운 전환, 새로운 연결을 현실로 실현하겠습니다.
통신업계 최대 단일노조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도록!
15대 노동조합이 노조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핵심 공약

- 1 역대 집행부 최고의 임금인상률 쟁취
- 2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임금체계로 혁신
- 3 고용안정 사수로 조합원 생존권 보장
- 4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제도 개혁
- 5 선진형 복무제도 실현
- 6 균형 있게 수혜 받는 보편적 복지로 변혁
- 7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제도 확충
- 8 조합원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9 투명하고 소통하는 노동조합으로 개혁

15대 집행부에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

노력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원해요.

조합원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해 주세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내 주머니와 미래도
두둑해졌으면!

우리도 해보자!
회사 복지로
가족이랑 플렉스~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로 정당하게
보상해 주세요.

의지를 꺾는
인사제도가 아닌
의지를 북돋는
인사제도로!

고용불안 없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괴롭힘과
갑질 없는 일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년제도, 임금피크제
떨어고쳐 주세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눈물 삼키는 조합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일터에 바친 청춘,
안정된 노후로
보상 받아야죠!

고질적인
승진적체 그만!
나도 승진하고 싶다!

소외되는 이 없는
공평한 복지,
어깨가 절로 펴지는
풍성한 복지를 원해요.

실노동시간 단축과
개인시간 증대,
이제는 대세 아닌가요?



2024 ICT 10대 이슈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리 / 편집실

다양한 기술의 혁신과 융합은 디지털 시대를 더욱 선명히 만들어가는 중이다.
2024년 디지털 혁신을 이끌 ICT 10대 트렌드를 살펴본다.

AI

모든 곳의 AI,
경량화로 실현

올해 ICT 업계의 최대 화두는 AI다. 지난해가 생성형 AI의 태동기였다면 올해는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출시가 본격화하면서 AI의 상용화·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선도 기업은 지난해 집중했던 언어모델(자연어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학습된 모델)뿐 아니라 멀티모달(이미지·음성·영상 등 데이터의 다양한 유형을 학습, 처리)로 AI의 성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높은 연산량을 유지하면서도 소형기기에 AI 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AI 경량화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AI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초거대 AI는 막대한 운영비용 및 전력 소모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과 고성능은 AI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최근 매개변수의 양적인 증가가 AI의 성능 향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볍지만 똑똑한 'AI'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올해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와 NPU(Neural Processing Unit)*가 공존하며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학습과 추론 영역, 고성능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GPU의 경쟁력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며,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NPU의 경쟁력 또한 커질 것이다. 또한 디바이스의 소형화 및 AI 연산에 대한 요구량이 급증함에 따라 반도체에 여러 가지 기능과 고성능, 소형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셈인데,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에 급진전을 보이기에 난이도나 비용이 막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기능과 고집적화 기술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한 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GPU, CPU, 메모리 같은 다양한 이종칩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것과 함께 반도체 수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이다.

*NPU : 인공지능 및 딥러닝 알고리즘 실행을 위한 하드웨어
*반도체 수율 :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IC)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 개수의 백분율

AI 성능
혁신의 주역

반도체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자율행동체가 온다

배터리 산업의 혁신과 충전 인프라의 확산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전기전동화로 바꾸며 모빌리티 산업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기전동화에 AI 기술이 결합하면서 모빌리티는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율행동체'로 진화해 가고 있다. 자율화·무인화는 자율주행차, UAM,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산업 공간에서의 역할, 사회적 공간 등을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한편,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휴머노이드(Humanoid)'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은 자가 학습을 통해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 휴머노이드로의 진화는 로봇이 사람과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을 만든다.

생성형 AI의 콘텐츠 제작량의 급증은 방송과 OTT 산업에서의 지각변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나 IPTV, OTT의 경우 시청률이나 가입자 수,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 경쟁력의 핵심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방송산업은 콘텐츠의 품질과 AI의 활용 역량으로 경쟁하는 '개방형 크리에이터 산업'으로 진화될 것이다. 생성형 AI가 메타버스 재도약의 엔진으로 작용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메타버스 산업은 현실감 및 동시성이 중요한 산업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결합해 완성체를 이뤄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고도화된 생성형 AI가 뒷받침한다면 메타버스 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영역을 확장해가는
생성형 AI

콘텐츠

앞으로의 디지털은 앰비언트(ambient)로 변화될 것이다. 앰비언트는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디지털 환경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예측해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을 말한다. 앰비언트 확산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온디바이스 AI이다.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높은 비용이나 서비스의 지연 가능성,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소형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경량화로 소형 디바이스에 AI 적용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AI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일상에 스며드는
디지털

디지털 라이프

네트워크

오픈랜부터 우주인터넷, 양자인터넷까지

최근 네트워크 산업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 ‘오픈랜(Open RAN)’이다. 오픈랜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장비가 호환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혁신만으로도 통신 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해 나간다. 이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업과 새롭게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주인터넷과 양자인터넷과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역시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의 경우 SPACE X, Amazon, OneWeb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자인터넷 또한 전자기시대에서 양자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과정에서 태동 중이다.

소프트웨어는 독자적인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 아니라 장비와 부품,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성능과 경쟁력을 재정립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른바 ‘SDx(Software Defined Anything/Everything)’ 시대로의 전환으로,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성능의 경쟁력뿐 아니라 자사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산업생태계를 자사 중심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 MS, NVIDIA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자신만의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과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SW로 재정의되는 디지털

SDx

안전

위기의 일상화, 디지털로 대비

기후 위기 속 대형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 또한 주요 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안전 및 보건은 전 세계적으로 부각하는 이슈다. 이에 따라 과거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디지털 헬스케어는 안전보건의 메인 파트너로 진화될 것이다. AI 영상 인식기술을 활용한 질병에 대한 선제적 진단은 이미 가시화되어 활용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이나 중독질환에 있어서 디지털 치료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한 재난 대응이라든지 디지털을 활용한 탄소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는 디지털 활용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디지털 트윈 :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

디지털 심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체화

디지털이 심화할수록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편익은 증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초거대 AI가 가지고 있는 환각 현상과 데이터 편향은 불완전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과거 기술 중심의 혁신만을 추구해온 결과로, 이는 디지털 심화의 중점 요소로 신뢰가 부각되는 배경이다. AI 기술에 대한 워터마크나 진위 탐지 기술 등이 도입되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통해 국제적인 공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디지털의 새로운 질서는 추상적인 규범이 아닌, 기술 표준 및 법제화 등 통상 질서로 구체화되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의 불안,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등 나라 밖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견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막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술자립에 성공하고자 하는 중국 간 기술혁신을 중심에 둔 대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대결 구조는 하나로 표준화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기술 표준의 이원화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권경쟁의 승패를 가릴 중요한 요소로 전통적인 전쟁이 육해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전쟁은 정보심리전으로 전개될 것이며, 전쟁의 양상 또한 자동·무인화로 진행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지휘통제 체계 역시 과거의 중앙집권적 일원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수의 전략자산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기술·안보를 점검하라

패권경쟁

지구가 '끓는' 시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법

2023년 7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의 종결을 선언했다.

대신, 이제는 그보다 더한 '지구가 끓는 시대(Global Boiling)'로의 돌입을 시사했다.

실제로, WMO(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당해 7월 1일~23일 지표면 평균 기온은 16.95°C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3주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진 지금,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을 알아본다.



KTTU 생활백서

전 세계의 과제 탄소중립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체감온도 66°C라는 기록적 폭염이 발생했고, 절대 녹지 않을 것 같던 알프스의 빙하는 2년 사이 10%가 증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그렇기에 전 세계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최초로 다짐한 것은 2015년 '파리협정' 당시다. 10년간 탄소배출량을 45% 이상 감소시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 협정에 참여한 195개국은 2020년부터 본격 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5년 주기로 이행 결과를 점검하기로 약속하는 등 꾸준한 실천을 다짐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관련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RE100'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애플, 구글 등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장서 실천에 나섰으며, KT 또한 지난 2022년 RE100 가입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 움직임에 동참했다. KT는 기업 내 자원을 활용한 자체 재생에너지 확보에 주력하고, 에너지 신기술 분야 R&D를 강화해 내부 역량을 다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국가와 단체가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실천 또한 중요해졌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평균 탄소량은 세계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약 12톤이라는 연구결과도 도출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일회용품 줄이기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커피 용기로 예를 들면, 2년간 플라스틱 컵을 하루 1개씩 사용할 때, 텀블러를 사용할 때보다 33.5배의 탄소를 더 내뿜는다. 종이컵 역시 텀블러에 비해 18배 높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했다. 텀블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데 배출되는 탄소량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한두 번 사용에 그쳤을 때로 국한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친환경적이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개인의 탄소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동차 운행이었다. 실제로,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살펴볼 때, 지하철과 버스의 탄소배출량은 자동차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이 0에 가까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급가속, 공회전을 하지 않고 경제속도인 60~80km/h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디지털 탄소 감축 이야기도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탄소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 등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디지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메일함을 자주 비우고, 음악과 영상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보다는 다운로드 후 감상하며, 모니터의 밝기는 최대 밝기의 70%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TIP 탄소중립 활동으로 재테크 실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재테크도 가능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활용해보세요!



대상 활동	포인트
전자영수증 발급	100원/건
텀블러 이용	300원/개
일회용컵 반환	200원/개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회
다회용기 이용	1,000원/회
무공해차 대여	100원/1km
친환경 제품 구매	1,000원/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00원/1kg
폐휴대폰 반납	1,000원/건



자세한 참여 방법은 QR코드 스캔 후 확인 가능

KT노동조합소식지 / 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이 주목받고 있다.
매일 하루 10분, 20분이면 마음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

명상은 생각에 집중하고 마음을 훈련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행동을 말한다. 본래 인도나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양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수행법의 한 가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힐링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명상의 다양한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매일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명상의 대표적인 효과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매일 10분씩만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면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게 된다.

명상을 통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을 하는 것은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척추를 바르게 세워 자세를 바로 잡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폐와 근육, 신경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효과적인 휴식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선호하고 있다.

편안한 옷과 자세면 준비 완료!

명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자극이 적은 공간을 찾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음악이나 명상 가이드를 틀어놓고 해볼 것을 추천한다. 최대한 가벼운 복장과 본인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로 앉아서 하지만 상황에 따라 누워서 하거나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집중하기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다.

자세를 잘 잡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 우리 몸 속 깊은 곳까지 숨을 보냈다가 천천히 내뿜는다. 깊은 호흡을 반복하며 외부의 자극을 잊고 내면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명상은 아무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휴식법이지만, 때로 '싱잉볼'이라고 불리는 명상 종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명상 초보자들이 명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명상에 적합한 시간은 약 20분으로, 처음에는 5~10분 정도로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하루 10분 명상법

1 명상하기 좋은 장소 선택하기

내면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본다. 장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두꺼운 방석을 준비해 그 위에 앉는 것도 좋다.

2 가부좌를 틀고 앉기

가장 기본적인 명상의 자세로 양다리를 허벅지 위에 올려 앉은 가부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불편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서 편하게 있도록 한다.

3 허리를 펴고 턱이 빠져나오지 않는 자세 유지하기

앉은 상태에서 꼬리뼈는 최대한 아래, 척추는 곧게 세우는 느낌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균형을 잡는다.

4 온몸에 힘 빼기

그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얼굴의 온화한 미소는 몸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배로 호흡하기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고, 숨을 내뿜을 때 배를 오므려 숨을 내뿜는 복식호흡을 한다.

6 마음속으로 한 점을 그리고 그 점을 응시하기

집중이 안 될 경우, 마음속으로 점을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만히 눈만 감고 있으면 졸음과 잡념이 밀려올 수 있다.

맛따라 멋따라,
겨울을 품은

전북

여행여치도

코끝이 찡한 겨울이지만
이한치한(以寒治寒)을 즐기기 위해 여행길에
떠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다. 입맛을
돋우어 줄 장소를 찾고 있었다면, '금강산도
식후경'을 만끽할 수 있는 전라북도도
떠나보자. 눈 내린 한옥마을 풍경이 아름다운
전주와 자연이 빛은 보물을 간직한 부안이
바로 그 주인공.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예술의 매력을 흠뻑 느끼는 한편, 미식
투어의 메카에서 겨울에 더 맛있는 음식들을
즐거보는 것은 어떨까. 눈과 입이 즐거운
전주와 부안 여행지를 소개한다.



연화정도서관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자리한 전주시립도서관으로, 2022년 6월에 개관하였다. 공원의 연못 한가운데에 한옥으로 지어져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여름이면 연못을 가득 메우는 연잎과 연꽃이 어우러지고, 겨울이면 눈이 내린 풍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매주 월요일 휴무,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전주시에는 숲속 작은 집에 시집이 가득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 2천여 권의 여행 관련 책을 간직한 '다가여행자도서관' 등이 있어 도서관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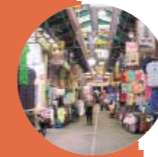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90-1



전주난장

전 세대가 함께 보고, 만지고, 사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박물관이다. 25년간 자료를 수집해 3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탄생했다고 한다. 70여 개의 테마존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10년 된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어보고, 레트로 감성이 풍기는 전시물을 통해 한국 근대사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7080 추억의 거리, 옛 먹거리 장터는 지났을 시대에는 '그때 그 시절'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는 신선함을 불러일으킨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매일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33-20



남부시장

한옥마을에서 '전주천 여행자 거리'를 따라 건다 보면 남부시장에 다다른다. 저렴하면서도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이 많아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도 통한다. 단돈 2천 원에 쌍화탕을 파는 카페 '행원'부터 토렴식 콩나물국밥의 대명사로 통하는 원조 '현대옥' 등 다양한 맛집들이 있다. 전주 인기 먹거리인 모주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맛있는 한 끼를 즐긴 뒤에는 근방에 있는 전주부성의 풍남문과 전라감영·전주객사를 둘러보면 좋다. 특히, 전주객사 바로 옆 '객사길' 주변에도 노포 맛집들이 많아 미식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19-3



전주한옥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으로,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전주의 대표 관광지다.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 중요 문화재와 20여 개의 문화시설, 그리고 각기 다른 주제로 조성된 6개의 공원이 있다. 한옥마을을 자세히 알아가고 싶다면, 역사투어, 골목길투어, 옛길투어 등 코스별 도보해설투어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먹거리를 즐기거나 전통 공예 체험이 가능하다. 한복을 빌려 입고 오가는 여행자들도 많아 마치 조선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전동성당

호남지역 최초로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다. 서울 명동성당을 설계한 프와넬 신부가 설계해 초기 천주교 성당 중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힌다. 이국적인 외관 덕분에 여행객들의 사진 명소가 되면서 현재는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여러 천주교 신자가 순교를 당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맞은편에는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인하고 있는 경기전이 있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서학동예술마을

한옥마을과 전주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학동 예술마을이 있다. 한옥마을에서 자리를 뺏긴 예술가들이 서학동에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예술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떡집, 이발소 등이 1980년부터 1990년대 옛 골목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주변으로는 감성 가득한 갤러리, 공방, 소품샵과 같이 각 예술가들의 개성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공간들로 꾸며져 있어 인기가 높다. 서학동사진관·서학예술마을도서관 등 여행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2-1

KT노동조합소식지 / 터



채석강

수만 권의 책이 높게 쌓여 있는 듯한 퇴적암 절벽과 바다가 있는 곳이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술에 취해 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은 채석강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채석강은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간조 때는 물 빠진 퇴적암층에 붙어있는 바다생물과 해식동굴의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해식동굴의 입구가 한반도 모양과 비슷해 그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것도 관광의 필수코스다. 물이 차오르면 볼 수 없으니 국립해양조사원의 스마트 조석예보를 통해 물때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내소사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전통문화재 사찰로,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약 600m가량 천나무 숲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 절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내소사의 대웅보전에는 호랑이가 집을 짓고 파랑새가 단청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만큼 신비로운 매력이 느껴진다. 불상 뒤편의 후불벽화에는 '백의관음보살좌상'이 그려져 있다. 관음보살의 눈을 보며 좌우로 움직였을 때 눈동자가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191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은 고려시대 질 좋은 청자를 생산하던 곳이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과거 고려청자를 굽던 가마터 위에 세워졌다. 진품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동,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동, 고려청자를 구워낸 가마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야외사적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및 체험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매주 월요일 휴무, 관람 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동되니 미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람료는 연령에 따라 3천 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숙소 정보

신청방법
(홈페이지) KATE → ERP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모바일) KATE → 마비서 → 휴양시설

전주 왕의 지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7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변길 73



솔섬

변산반도의 작은 섬으로,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보여주는 명소 중 하나다.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해서 옛날부터 송도로 불리다 지금의 솔섬이 되었다. 특히, 육지의 솔섬 앞에서 섬 뒤로 지는 해를 감상했을 때의 풍경이 장관이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태양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듯한 모습과 유사해 감탄을 자아낸다. 간조가 되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솔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곰소염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천일염 생산지로, 변산반도에서 차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줄포만에서 곰소만까지 바닷물을 끌어 만든 소금인 화염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유적지 중 하나다. 소금은 보통 3월 말에서 10월까지 생산되는데, 5-6월에 소금 생산량이 가장 많고 맛도 좋다. 겨울의 곰소염전은 소금 대신 반짝이는 얼음 눈꽃으로 채워져 있다. 날이 맑은 날엔 염전에 하늘이 비치는 일명 '거울샷'을 남길 수 있는 사진 명소이기도 하다.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염전길 18

전북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전북의 맛

삼백집 전주 본점



전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70년 전통의 콩나물국밥 맛집. 전주 시내 영화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 아무리 손님이 몰려도 하루에 삼백 그릇만 판매해 '삼백집'이라 불리게 되었다. 오랜 시간 우려내어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22

초월편의점

여행의 피로를 씻겨 줄 가깝적이다. 안주로는 황태포가 대표적이는데, 뜨거운 연탄불로 구워 바삭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낸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기 좋은 먹태, 명태, 갑오징어, 계란말이 등의 메뉴도 있다. 24시간 연중무휴기 때문에 여행 중 피로를 풀고 싶을 때 방문하기 좋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32-1

한울밥상

한옥마을 인근에서 한정식을 먹고 싶다면, 한울밥상을 추천한다. 16칸으로 이뤄진 한상차림인 특한울정식과 담백하고 부드러운 떡갈비를 맛볼 수 있는 수제떡갈비정식이 인기다.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운영하며,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이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4

현정이네

곰소항 바다 맞은편, 수산물종합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다. 회정식 메뉴를 주문하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신선한 제철수산물과 매운탕, 20칸에 달하는 한상차림이 제공된다. 근방에는 젓갈직판장이 있어 천혜 소금 염전으로 유명한 곰소항의 소금과 젓갈을 구입할 수 있다.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 66-15

동래분식



추운 겨울, 뜨끈한 죽이 먹고 싶을 때 반겨주는 남부시장의 죽집이다. 대표 메뉴인 새알팔죽이 8천 원으로, 푸짐한 양을 자랑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식성에 따라 설탕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된다. 새알팔죽 외에도 깨죽, 깨칼국수도 인기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39

채석강맛집

채석강 근처의 간장게장 전문 맛집. 채석강맛집밥상 메뉴를 주문하면 즉석술밥과 간장게장, 양념게장, 백합찜, 조개탕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특히 탕글탱글한 식감과 알이 가득 찬 서해안 암게를 사용해 맛을 더한다. 매주 화요일 휴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25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

<미안해요, 리키>

글 / 임종우 영화평론가



2024년이 되었으니 어느새 회사를 나온 게 재작년이다. 사실 그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이곳에 갇힌 나 자신이 몹시 불쌍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잠이 오지 않았고 어느 날 밤에는 울었다. 결국 이상한 핑계를 대며 도망쳐 나왔다. 현재 그곳은 일 년 내내 채용이 끊기지 않는다. 여러 명이 들어오고 몇몇 사람들이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인력이 자리를 메운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중 한 명’이라는 감각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라 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나 다음에 들어올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이후에 계속 대체될, 기억할 수 없는 이름과 얼굴을 가진, 수많은 ‘한 명’들.

나의 주변에도 이러한 ‘한 명’들이 있다. 대형 전자제품을 사거나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 메시지가 온다. 낯선 얼굴과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름을 가진 설치 기사의 정보를 받는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기사의 (업무)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가 오곤 한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언제인가 이름이 바뀌면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 <미안해요, 리키>가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반가운 친밀함은 아니다. 2019년 영화인데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가 2024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서구의 노동환경조차 나온 점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서 좌절하게 된다.

<미안해요, 리키>를 지금 우리 사회의 맥락 안에서 번역해 보면 몇 가지 보편적인 문제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노동자 간 관계 형성이 까다로운 방식으로 업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미안해요, 리키>에서 리키의 고용주는 ‘자영업’이라는 최면을 건다. 그 ‘자영업’이라는 코드 안에는 서로 대화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경쟁하라는 주문이 탑재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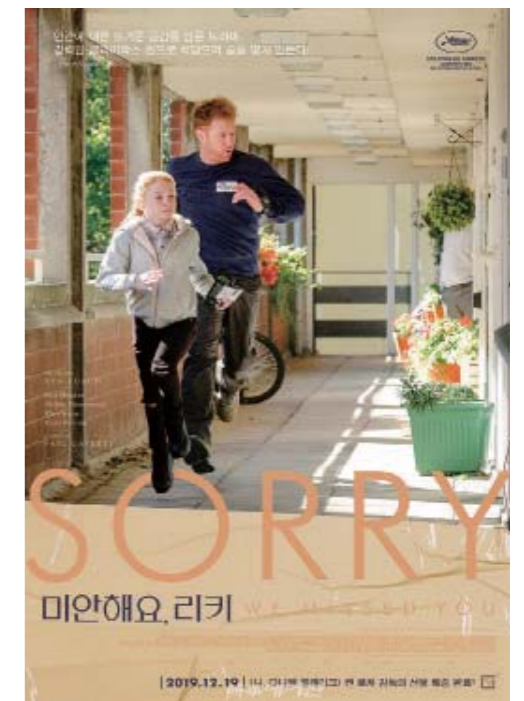
있다. 그리고 주요 업무에 있어 소통은, 단말기를 경유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일대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리키는 모르는 게 아주 많다. 다른 동료들이 얼마를 버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름은 갈등과 분절의 씨앗이 된다. 권력이 의도한 대로.

그럼에도 <미안해요, 리키>는 알고자 하는 의지, 연결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영화다. 이러한 마음은 특히 리키, 애비, 라이자, 셉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발현된다. 인상 깊은 순간이 두 번 있었다. 바로 라이자가 리키의 업무 차량을 타고 택배 배송을 함께했을 때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차를 타고 애비의 갑작스런 야간 근무를 도왔을 때다. 업무 차량은 리키의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가족의 마음이 리키에게 주어진 노동의 장소에 스며드는 장면이라 소중하다. 그리고 애비, 라이자, 셉의 자리에서는 리키가 종일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떠한 조건 혹은 상황에 놓여있는지 어렵פות이 이해하게 된다. 서로 앓을 통해 회복을 도모한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노동자의 삶에서는 반쪽의 연대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장면은, 이후 리키가 회사에서 일하는 장면과 붙으면서, 소소한 공동체 하나 없는 노동 환경 속 리키 앞에 남겨진 냉혹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미안해요, 리키> 말미에 리키는 몸이 망가진 채로 새벽에 가족 몰래 집을 나선다. 업무 차량에 몸을 싣고 시동을 켜다. 셉과 애비가 연달아 나와 리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리키는 끝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그는 자동차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렇게 고립된다. 그 안에서 <미안해요, 리키>의 이야기는 종료된다. 이 지점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다. 리키가 자동차 너머로 본 건 무엇이였을까. 영화는 어떤 미래를 생각한 걸까.

한 명의 관객으로서 ‘미안해요, 리키’라는

한글 제목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원래 영문 제목(Sorry We Missed You)이 작품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반면 ‘미안해요, 리키’는 상대적으로 직설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피어나는지, 그 마음이 또 어디로 뻗어나가 도착하는지, 그리고 ‘리키’의 얼굴과 이름은 이제 어떤 존재에게 다가가서 접촉하게 될지, 다양한 해석과 의미 생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다시, <미안해요, 리키>의 마지막 장면 이후의 이야기는 어때야 할까. 영화의 경우 쉽게 낙관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않았다. 어떤 범주 안에서 진동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미안해요, 리키>

개봉 2019.12.18

감독 켈 로치

출연 크리스 허친, 데이 허너드

주요소식

노동조합 규약·규정 개정
현 실정 반영하여
체계화 작업



KT노동조합은 1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을 운영했다. 이는 KT노동조합 15대 집행부의 출범에 맞춰 규약·규정의 기존 편제를 다듬고, 중앙본부의 슬림화 및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담반 운영은 조합원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 질의항목 확정을 통한 설문조사 신속 시행으로 노동조합 15대 집행부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적극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또, 불필요한 결재 과정을 줄이고 명확한 실·처 간 업무분장을 통해 중복된 직무로 인한 시간 낭비를 없애 체계적인 지침에 따른 조직 내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약·규정 전담반은 항목별 변경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위원장 현장순회
지부통합 및 신설지부 등
심의·의결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1월 15일(월)부터 융합기술원지부 등 본사지부통합을 시작으로 전국 80개 지부 순회에 나섰다. 이는 지난 위원장 선거에 협조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현업의 현안을 폭넓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인관 위원장은 이날 지부장 등 현장 조합 간부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조합원의 질문에 언제나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항상 수첩을 들고 메모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합원의 성원을 자양분 삼아, 집행부 1년 차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서
서부지방본부
결성준비위원회 구성



KT노동조합은 1월 11일(목), 2024년도 제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부지방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중앙본부 자문위원 위촉 건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회사가 조직개편을 통해 강남/서부광역본부를 강남광역본부와 서부광역본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데 따라 노동조합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방본부 결성준비위원회를 위촉하게 됐다. 노동조합은 상기 사항과 관련해 지난 1월 4일(목) 중앙위원회에서 서부지방본부 신설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2024 제1차 중앙위원회
서부지방본부 신설 관련
심의·의결



KT노동조합은 1월 4일(목), 2024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부지방본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라 기존에 통합된 강남지방본부를 ▲강남지방본부와 ▲서부지방본부로 분리하여 개편·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도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강남/서부광역본부를 강남광역본부와 서부광역본부로 구분해 조직을 개편·운영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조직 또한 회사 조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조합
2024년 시무식 개최
중앙상무집행위원 임명



KT노동조합은 1월 2일(화)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어 노동조합 15대 집행부 기조를 공유하고 중앙상무집행위원(중앙상집)을 임명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인관 위원장은 중앙상집 20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 새로 임명된 중앙상무집행위원들과 함께 각오와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KT노동조합 15대 집행부
지방위원장 당선자
워크숍 개최



KT노동조합은 12월 26일(화)부터 1박 2일간 제15대 집행부 단합을 위한 지방위원장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조합 이·취임식 및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계획, 15대 집행부 조직운영 기조 등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 당선자는 이날 각 지방본부별 당선자들에게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책무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가장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합 간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 평가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뒤 “내부 결속을 다지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조합원을 섬기겠다는 약속이나 진배없다”며 “철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각 지방본부를 운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년도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시행

조합원과 가족들의 재충전을 위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상반기 복지 (공통/미래육성) 포인트 지급

2024년 상반기 공통/미래육성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



2023년도 2차 퇴직연금제도 전환 신청

임직원 중 DB형 또는 혼합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신청받았다.



조직 및 부서별 임직원 업무용 단말기 지원

2023년 임직원 업무용 단말기를 지원하였다.



2024년 1분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2024년 2월~4월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컨설턴트를 선발하였다.



연말정산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자료입력 및 제출 방법을 안내하였다.



우리사주 취득제도 시행 안내

우리사주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해 2024 우리사주 취득제도를 시행하였다.



2023년 성과배분 지급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G직을 대상으로 성과배분을 지급하였다.



2024년 상반기 리프레시(Refresh) 휴직 시행 안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리프레시 휴직을 시행하였다.



조합원 초·중·고 자녀 대상 교육프로그램 신청

초·중·고 자녀를 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프로그램을 신청받았다.

복지

2023년 4분기 노사협의 결과

난임휴가 유급기간 확대

변경사항 | 1일(유급) + 2일(무급) → 전체 3일(유급)

시행일자 | 2024. 1. 1

참고사항 | 난임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유급 1일을 초과한 2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되어 난임휴가 무급일수가 포함된 월의 기본급과 성과급이 차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차감없이 전액 지급함
- 1인 평균 유급 1일당 21만 원 수준(기본급 15만 원, 성과급 6만 원)

퇴직직원 장제용품 지급기준 개선

구분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지원기준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지원내용	장제용품 150인용 + 근조화환

시행시기 | 2024년 1분기 내

참고사항 | 사유발생 시 다운플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다운플랜 1577-1555로 전화하여 장제용품 150인용과 근조화환 신청

중고 업무용 PC 희망자 대상 재판대

렌탈 업체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시, Data cleansing 및 검수작업 등을 거쳐 양호한 PC로 선별하여 제공

시행시기 | 렌탈사와 협의 후 추진

2024년도 자기계발비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 (전문경력직, 재직전출자 포함)

사용방법 | 자기계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지원금액 | 매년 1인당 연간 100만 원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승인분에 한정
- 당해연도 미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신청방법 | 연간 한도금액에서 1회 또는 여러 번 신청 가능
- 자기계발에 사용된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만 인정(간이영수증 불가)
- 위치 : ERP → HR → 개인업무 → 복리후생 → 신청 → 자기계발비 메뉴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 및 영수증 확인 후 소속 팀장에게 승인(ERP)
※ 영수증 원본은 개별 보관
※ 지급 후 거래취소 등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처분

새해 조합원께 드리는 혜택! 꼼꼼히 살펴보세요



난임 휴가 유급 기간 확대

2024년 1월부터 난임 휴가가 3일 유급 휴가로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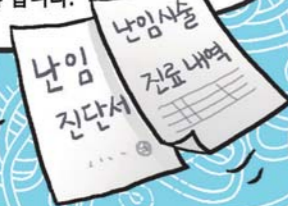
보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난임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유급 1일을 초과한 2일에 대해서 무급처리되어 난임휴가 무급일수가 포함된 월의 기본급과 성과급이 차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1인 평균 유급 1일당 21만원 수준 (기본급 15만원, 성과급 6만원)

난임 휴가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난임 치료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서장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남성 직원도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난임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고 업무용 PC 희망자 대상 재판매

※렌탈사와 협의 후 Data cleansing 및 검수 작업을 거쳐 양호한 PC로 선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PC를 구매할 수 있나요?

교체일정 조정, 개별 보관/운송, 이동/검수 과정에서 PC 컨디션의 변화 등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인이 사용하던 PC를 지정하여 구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매한 PC에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기존 업무용 PC와 같이 렌탈사를 통한 무상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제조사(LG전자) 유지보수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대 이상 복수로 구매가 가능한지요?



아직 구매 여부 조사 및 구매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복수 구매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직 직원 장제용품 지급기준 개선 등

2024년 1분기 내 실시됩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지원대상 (변경)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지원기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지급내용 (개선)	장제용품 150인용 + 근조화환



퇴직 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 발생 시 다운플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운플랜 1577-1555로 전화해 신청해주세요.



장제 용품으로 그릇(국/밥), 종이컵, 접시(대/중/소), 수저, 수저통, 식탁보 150인용이 지급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터>를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영지원부문 경영지원담당 빌다가치제고팀 이준우

2023년 단체교섭 합의안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행여지도를 통해 제주의 관광지 소개와 인어공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칼럼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롭고 유익한 많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강북/강원광역본부 동부고객본부 의정부지사 CS부 CM1팀 박창섭

매번 노동조합 소식지에는 알찬 소식이 많지만, 특히 이번 소식지에는 단체교섭 합의안 내용, 치아균열의 치료법과 예방법 등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하네요. 특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를 자세히 다뤄 주셔서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조합원이 궁금해하는 유익한 내용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강남/서부NW운용본부 서울강남엑세스운영센터 품질계획부 박양준

입사 8년 차인데 처음으로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임단협 관련 궁금했던 부분과 제주도 여행 소개 또한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강남고객본부 강남영업기획담당 고객전략부 고객전략팀 시지연

단체교섭 내용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이해가 쉬웠고, 결혼 10주년 기념 생활입소 하면서 제주도를 갔는데, 여행 정보도 유용했습니다!

부산/경남고객본부 동부산지사 양산지점 CM1팀 전정수

이번 호는 관심 가는 내용이 많아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알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강북/강원NW운용본부 서울강북엑세스운영센터 충청엔지니어링부 품질분석팀 김종완

KTTU 소식지를 통해서 최신 사내/외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금협상안 내용과 구강건강정보가 기억에 남네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주도의 구경거리, 맛집 정보도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남고객본부 동부산지사 영업기획팀 고객careTF 박경희

제주 맛집과 여행지 추천 너무 감사드려요~ 올해 지인들과 일정이 안 맞아서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딱! 여행지와 맛집 추천 기사를 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알찬 정보와 소식 제공으로 언제나 소식지를 기다리는 1인입니다.

강남/서부광역본부 서부고객본부 안양지사 마케팅부 소매영업팀 오인주

이번 소식에서는 특히 ICT 업계의 소셜미디어 소식을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타사의 소셜미디어 출시 소식과 그 성공을 위해서는 통신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량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 되는 회사의 정보들과 업계 인사이트 공유 감사드립니다.

KT링크스 수도권광역본부 강남지사 양부열

‘터’를 매달 받아보고 읽으면서 많이 알아갑니다. 사내소식을 비롯해 건강, 여행 등 다양한 문화소개와 현장의 목소리까지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계열사를 정해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고객본부 강서지사 마케팅부 소매영업팀 모다영

궁금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폐증에 대해 잘 몰랐는데 희망박스가 진폐증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KTTU 초성 QUIZ

네모 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터]를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L D S H → 노동조합]

보내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 ○ ○ ○

‘거침없는 ○○! 중단없는 ○○!’의 슬로건과 함께 제15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12페이지 참고)

○ ○ ○ ○ ○

○○○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장비가 호환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18페이지 참고)

○ ○ ○ ○ ○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에 관한 공동의 노력을 최초로 다짐한 것은 2015년 ○○○○에서다. (20페이지 참고)

KT 임직원 감사 답례품(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익을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운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발신번호 별로 할인을 책정하며, 할인율은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구매 시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 최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최초 구매 후 추가구매는 7영업일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구매 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 최초 구매 100만 원 : 5% 할인 적용
→ 추가구매 20만 원 : 5% 할인 적용

추가구매로 인한 누적금액의 합산 할인을 적용은 불가합니다.
ex) 최초 구매 50만 원 : 3% 할인 적용 / 추가구매 150만 원 : 5% 할인 적용
→ 최초 구매 50만 원에 대해 추가 2% 할인 적용 불가

★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500원	100	45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13,500원	100	135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익 17개
베스킨 라빈스	골라먹는 와썹원	27,000원	30	81만 원	아이스크림 케익
판매가 합계					261만 원

→ 7%할인 (182,700원)된 금액 2,427,300원을 입금

문의 다운플랜 1577-1555 (ARS 3번)

아플 때  힘이 되는

가족사랑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부터 질병 발생 후 치료 지원의 단계를 연결해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

 헬스 콜 서비스 1577-1555 → 4번

- **지원 대상** 다온플랜 회원과 직계가족
- **이용 시간** 24시간 36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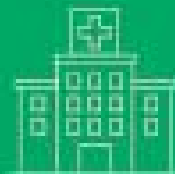
일상 케어 [↑]

- 건강상담
 - 병원 및 영리 안내
 - 검진 상담 및 우대 예약
- (KT 복지카드에서 정산 가능한 본인 혜택)



질환 케어 [↑]

-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
- 간호사 진료 동행
- 처방 메스코드



※ 가족사랑 헬스케어서비스의 운영차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다온 헬스케어 콜센터 (☎ 1577-1555 → 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콜센터
☎ 1577-1555 → 4



모바일 앱
[KT다온헬스케어]



서비스 이용